

www.neargov.org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2012
ANNUAL REPORT
2012년 연차보고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2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6개국의 71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으며 4억 4,60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협력기구입니다.

Contents

메시지 | 06

제9차 총회 | 09

1. 사전 활동
2. 총 회

분과위원회 활동 | 17

1. 분과위원회
2. 2012 분과위원회 개최
3. 2013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실무자 워크숍 | 23

1. 특별강연
2. 수범사례
3.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4.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탐방

연합 기반 강화 | 29

1. 新 비전 조사·연구 영역
2. 웹 사이트 재구축
3. NEAR News 발간 확대
4. 주요인사 방문

2012 행사일정 | 33

대외협력 네트워크 | 37

사무국 | 41

부록 | 45

1. NEAR 회원
2. NEAR 읍저버
3. NEAR 협력 기구 회원

메시지

Message

合第九次全体会议
Assembly

Message

2012년은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창설 16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9차 총회가 개최된 해였습니다. 연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년 임기제로 운영되어 오던 상설사무국의 운영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장기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연차보고서(NEAR Annual Report)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합의 활동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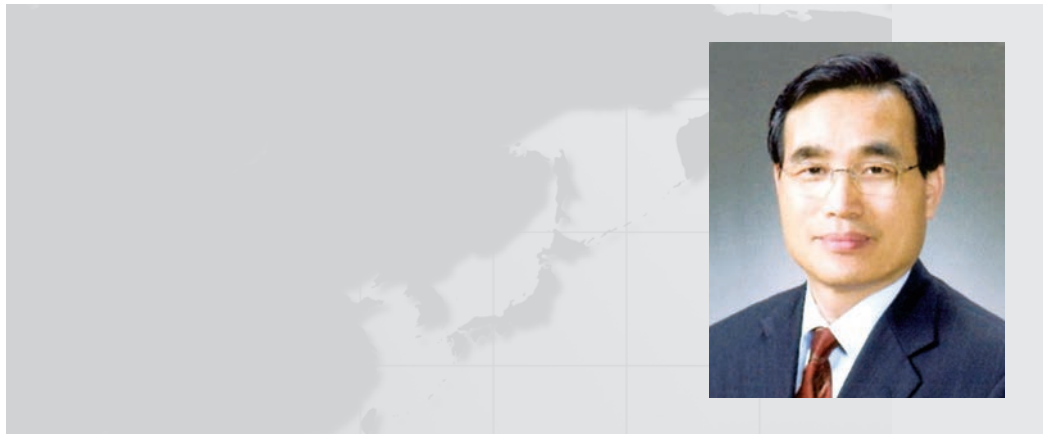
지난 2010년 초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발로 3년째 지속된 유럽발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을 전후하여 심화된 한국·중국·일본 간의 영토 분쟁과 역사인식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가간의 갈등이,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연합의 회원 지방정부간의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중국 수교 20주년, 중국·일본 수교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나 교류협력에 타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에는 연합의 회원지역인 북한,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한국에서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는 정치적 전환기였으며, 이에 따른 변화가 2013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에는 연합의 제9차 총회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 주도로 성대히 개최된 바 있는데, 왕정웨이 주석의 2년 의장 임기 동안 연합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차기 의장 단체이자 2014년 제10차 총회 개최지로는 대한민국의 전라남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연합의 국제적 협력 관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유럽지방정부연합회(AER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서 201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NEAR 국제포럼'에 AER 의장 대표단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 유럽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AER 총회에 NEAR 사무총장 대표단이 참석하고 양 기구간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 등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지방정부간의 국제협력기구인 기후변화 지방정부행동기구(R-20 : Regions of Climate Action)와 파트너 회원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R-20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함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간의 협정체결 추진도 중요하지만, 협정이 체결되어도



정책의 집행이나 대응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실질적인 대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세계 각 지역의 지방정부와 NGO, 연관 기업,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연합의 홍보 역량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기존의 NEAR 웹사이트를 독립서버 기반으로 완전히 재구축하여 소통과 정보교류 및 홍보 역량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연합뉴스(NEAR News)의 발간 부수를 2,000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연합의 협력 창구인 분과위원회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분과위원회 위원장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공통의 지향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방재분과위원회를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가 각 주관단체(coordinator)별로 개최되었으며 주제 선정과 실질적인 성과 등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연합 창설 이래 도입을 잠정 유보해 온 회비제에 관하여, 연합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도입 목적,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제7·8·9차 총회를 거치면서 도입에 관한 다양한 협의를 가졌으며 점차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과제로서, 창설이래 회원지방정부간의 교류 확대·심화에 중점을 두어온 연합을 '21세기 : 아시아의 세기'라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2020년을 즈음한 창설 25주년을 목표로 하는 연합의 비전과 미션을 재조명하고 중장기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회원정부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종래 국가간의 관계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협력이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분권화의 강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은 보완적(subsidiarity)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며 그 중심에 동북아가 있고, 동북아의 중심에 연합(NEAR)이 있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2.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재호



2012년도 한 해 동안 연합회의 주요 활동 상황과 성과를 담은 「20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연차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9차 총회와 방재·교육문화·광물개발·에너지기후변화·변경협력 분과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회원 주관단체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는 세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세계 국가 GDP의 24%와 세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는 석탄, 천연 가스, 석유를 비롯한 광물과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생산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어 인류가 앞으로 직면할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동북아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1996년 출범한 우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방정부간 유일한 공동협력체로서 회원단체들이 보유한 지혜와 경험을 교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6년간 경제, 관광, 문화, 농수산,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단체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각 지방정부가 쌓은 지식과 경험들이 자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 부족문제 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2 연차보고서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2. 12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 대한민국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제9차 총회

The 9th General Assembly

The 9th NEAR General Assem

中国·宁夏·银川

Yinchuan · Ningxia · China

24-27 July 2012



동북아시아 우정의 다리

1. 사전 활동

가. 홍보 활동

사무국 7명과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대표단 5명 연합으로 구성된 총회 홍보단 12명은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주간 한국·일본·몽골지역의 회원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총회 참가 및 현지사정 파악과 의견청취를 하였다. 닝샤후이족자치구 외사판공실의 탄자오화(譚朝華) 비서장은 왕정웨이(王正偉) 주석이 서명한 초청장을 회원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총회 준비상황 및 총회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총회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방문한 회원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전라남도·경기도·경상남도, 일본 효고현시·시마네현·돗토리현, 몽골 바양 홍고르아이막·올랑바타르시·우부르항가이아이막이며, 부지사급 이상의 총회 참석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주일본중국대사관, 주몽골중국대사관 및 일본 CLAIR 본부를 방문, 주재지역의 회원자치단체들이 총회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사전 회의

NEAR 김재효 사무총장은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를 방문하여 총회 회의장과 부대행사장을 사전 점검하고 현지시찰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였다.

총회홍보단 일본 효고현 가나자와 가즈오(좌측 사진 좌측에서 3번째) 부지사와
우부르항가이아이막 티그터호수릉(우측 사진 중앙) 지사 예방



2. 총 회

제9차 NEAR 총회가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심화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공동번영”을 주제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 6개 단체, 일본 6개 단체, 대한민국 11개 단체, 몽골 7단체, 러시아 2개 단체와 남북한 외교관 및 비회원단체, 옵저버단체, 유관기관 등 28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처음으로 외교단이 일부 참여하고, 2004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제5차 NEAR 총회 이후 8년 만에 북한대표로서 주중국 북한대사관에서 대리 참석하였다.

가. 본회의

7월 25일 오전에는 제9대 NEAR의장인 왕정웨이 닝샤후이족자치구 주석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NEAR 주요 활동 보고와 회원 지방정부 대표들의 발표 시간을 가졌다.

왕정웨이주석은 “심화된 지역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번영의 내일”이라는 주제발표로 NEAR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회원 지방정부 대표 7명이 회원단체의 우수정책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발표를 통해 총회 참석자들은 화합과 공동번영의 정신이 지역협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제9대
NEAR 의장 왕정웨이 닝샤후
이족자치구 주석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

나. 주요 의제

7월 25일 오후에는 2011년 제8차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5개 의제가 제9차 총회에 상정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2014년 총회 유치 신청
- 2)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
- 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연합 신규회원가입 신청
- 4)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청년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의 도입
- 5)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 회비제 도입

다. 낭사선언문

리루이 낭사후이족자치구 부주석의 〈낭사선언문〉 발표와 중국 낭사와 대한민국 전라남도 간의 NEAR 의장기 교대식이 진행되었다. 낭사로 부터 NEAR 의장기를 건네 받은 배용태 전라남도 부지사는 회원단체의 지지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2013년 10월에 개최될 제9차 NEAR 실무위원회와 제1차 농업분과위원회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무국 장기존치 확정 후
박수를 치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



NEAR 의장기 교대식



감사연설을 하고 있는 배용태 전라남도 부지사

닝샤선언문

제9차 총회 참석 대표들은 총회의 마무리로서 만장일치로 <닝샤선언문>을 채택하여 지역발전의 공동 비전을 제시하였다.

• 연합 내부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한층 강화된 연합의 영향력과 흡인력으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뿐 아니라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환영 하는 보다 열린 동북아 건설에 노력한다.

• 지역 장점들의 상호 보완을 통해 협력과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시범지구를 건설 하여 녹색경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광,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해양어업 및 실업해소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지속적인 번영을 촉진한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기준아래 상호 신뢰와 협조, 협력이 지역 발전촉진과 공동번영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면서, 연합의 전 회원단체는 단결 협력을 위해 이상의 공동인식과 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5일

중국 닝샤 인촨

행동강령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9차 총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선언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 행동강령을 발표한다.

1.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2014년 총회 유치 신청을 의결한다. 2014년 제 10차 총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한다.
2.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에 대해 의결한다. 새로운 역사적 기준아래 사무국을 장기 존속하는 것은 국제기구 간의 다각적인 조정 및 연락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회원단체간의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연합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의결한다. 우리는 회원 수 확대 및 회원지역 국가 간의 협력강화는 연합의 발전 추세라고 일제히 인정한다.
4.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청년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의 도입을 의결한다. 우리는 협력강화를 위해 회원단체들은 인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우선 청년들을 회원단체로 보내 연수사업을 진행한다.
5.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 회비제 도입을 다수결에 의해 부결한다.

라. 부대 행사

국가별 대표단 회견

상중시(項宗西) 닝샤후이족자치구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7월 24일 오후 4시부터 위에하이호텔 회견실에서 NEAR사무국 대표단을 시작으로 러시아, 몽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등 각 국 대표단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였다. 같은 시간 북한 대표단은 리루이 닝샤후이족자치구 부주석과 회견을 가졌다. 닝샤측과 각 국 대표단은 NEAR를 통한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상중시 주석과 NEAR사무국 대표단과의 회견

우호교류도시 협정식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성공적인 총회 개최와 함께 동북아의 주요지역과 우호교류도시협정을 맺었다. 지난 4월 총회 홍보차 몽골 비양홍고르아이막을 방문했던 닝샤 대표단은 비양홍고르아이막과 우호교류도시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제9차 NEAR 총회를 맞아하여 정식으로 우호교류도시협정을 체결하였다.



닝샤후이족자치구와 비양홍고르아이막간 우호교류도시 협정 체결 장면

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 개최

총회와 동시에 개최된 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는 닝샤후이족자치구 농목청 주최로 “녹색, 창조, 협력 그리고 공생”이라는 주제아래 각 국 원예산업 전문가들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오융비야오 닝샤후이족자치구 농목청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원예산업시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닝샤지역의 원예산업시설 시찰과 원예상품 참관 등의 활동을 통해 닝샤 현지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동북아원예산업세미나



닝샤 원예상품전시 참관

“우정의 숲” 식수행사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인민정부 주관으로 “우정의 숲” 식수행사가 7월 26일 오전 인촨시 삼림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식수행사는 NEAR회원단체간의 우정을 다지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협력의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총회 참석자들은 “우정의 숲”이 울창해지는 날을 기약하며 뜨거운 땀약별 아래 기쁜 마음으로 식수행사에 참가하였다.



“우정의 숲”식수행사에 참석한 김재호 NEAR 사무총장과 리루이 닝샤후이족자치구 부주석



뜨거운 땀약별 아래 땀 흘리며 나무를 심는 참가자들

“샤후(沙湖)” 현지시찰

호수와 사막이 어우러진 닝샤의 유명관광지 샤후에서 총회참석자들은 낙타타기와 모래 썰매 등을 즐기며 닝샤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샤후의 조감사진



샤후의 낙타

분과위원회 활동

Subcommittee Activities



동북아시아 협력 프로젝트 개발 촉진

1. 분과위원회

연합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는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의 보조기구로, 총회에서 제시되는 특정의 의제를 주관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거나, 특정 산업이나 주요 의제에 대해 주관(coordinator)을 희망하는 회원단체의 독자적인 제안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되며, 연합의 가장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1998년 경제산업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12년 현재 13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격년제로 운영되지만 일부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구성 배경이나 개최 방식이 상이하고 공통된 지향점이 미비하여 2011년도 처음으로 분과위원회 위원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매뉴얼을 마련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제나 프로젝트 선정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구성연도	개최횟수	주요활동 분야
경제통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1998년	9회	통상촉진, 무역상담, 세미나 등
환경	일본 토야마현	1998년	10회	표착물 조사, 환경심포지움 등
방재	일본 효고현	1998년	10회	재해 피해예방, 방재능력 향상
변경협력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2004년	2회	금융, 운송, 세관 인프라 조성
교육문화	일본 시마네현	2007년	3회	인재육성, 문화교류 활성화 등
과학기술	대한민국 경기도	2007년	3회	과학기술교류 등
관광	중국 허난성	2008년	2회	관광전시전 및 홍보, 협력포럼
해양어업	중국 산둥성	2008년	2회	해양자원 이용 등
광물자원개발조정	러시아 마가단주	2010년	2회	광물자원 채굴과 가공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2010년	1회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체계 등
여성아동	몽골 도르노드아이막	2010년	1회	여성, 아동 관련 정보 교환 등
생명의료산업	대한민국 충청북도	2011년		의료산업 교류 협력 등
농업	대한민국 전라남도	2011년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

2. 2012 분과위원회 개최

가. 제10회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3월 12일에서 3월 15일까지 4일간 효고현 코베시에서 5개국 16개 회원단체 대표 33명이 참가하여 제10회 방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효고현 재해대책센터에서 효고의 방재대책에 관한 발표를 듣고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코베시 수상소방서, E-디펜스 등 방재관련 주요시설들을 시찰하여 재난 발생시의 대처방법과 방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효고현 재해대책센터를 방문한 4개국 참가자들과 심폐소생술 시연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효고현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재난 방지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나 방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진발생 시 스스로 혹은 상호간에 어떻게 구조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적십자회 부연구원 사오룽청(蕭蓉成)



“금번 방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지진(1995년)과 동일본 대지진(2011년)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고, 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 방재정책의 개발지원, 시민협동과 감재를 목표로 설치된 “사람과 방재미래센터”와 효고현의 방재 및 감재시책 추진의 핵심 “광역방재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체험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큰 재난을 극복하며 향후 재난에 대비하여 애쓰고 있는 일본 당국이 일련의 재난상황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예상을 초월하는 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의 방재 대책과 구조 대책 등 방재당국의 사전대비책 조기 수립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정보 공유와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 비상훈련을 통하여 나와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과 자연재해담당 김흥연

나. 제2회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개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러시아 마가단주 마가단시에서 3개국 4개 회원단체 대표 20명이 참가하여 “광산업 및 관련산업 투자에 관한 법제, 지역 소개, 광물 생산지의 전망, 광산업체 대표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제2회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러시아 참가자들은 사하공화국과 마가단주의 유용광물 채굴부문에 있어 귀금속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매력과 거대한 자본의 투자를 요구하는 석유, 가스 그리고 석탄 채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 언급했다. 사하공화국과 마가단주는 투자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지역으로 유용광물 채굴산업이 GNP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에 NEAR 회원지역 참가자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광물자원개발·조정분과위원회의 장기적 역할의 합목적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견 일치를 하였다.

결의사항

- NEAR 회원단체 천연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
- NEAR 회원단체 광산업체 대표들을 분과위원회 참여 유도
- 민-관 협력 시스템 지원
- 분과위원회 결과 회원단체 통보
- 제3회 광물자원개발조정 분과위원회 개최 지원



다. 제3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8월 3일에서 8월 8일까지 5일간 일본 시마네현에서 4개국 7개 회원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가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청년들의 상호이해와 우호교류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제3회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홈스테이와 전통문화체험, 환경분야토론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주민과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라. 제1회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개최

10월 9일에서 10월 11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4개국 19개 회원단체 대표 41명이 참가하여 “회원단체 간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모색”이란 주제로 제1회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그 간 솔라시티로서 대구시가 이루어 온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회원단체 간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발표내용

① 기조연설(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 이회성 부의장)

「극한 기후현상위험 및 재해위험의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의 촉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 특별보고서 (2011)」

② 대한민국 발표

- 녹색성장위원회 안중환 국장 : 「녹색성장,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 세계솔라시티 총회 김종달 회장 : 「녹색개발과 대구 솔라시티」
-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박사 : 「대구시의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
- 대성청정에너지 박문희 소장 : 「태양광 발전 및 열 기술의 시장성」

③ 국외참가단체 발표 (중국, 몽골, 러시아)

-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환경모니터링 센터장 송리민 : 「대체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 과 조치」
- 몽골 투브아이막 기상사업소 정보서비스계장 어용체체그 :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정책, 재생 에너지자원활용」
- 러시아 알타이국립대학교 부총장 로타노바 이리나 : 「알타이지역 기후변화, 자연과 사회경제시스템 연구 및 적응문제」

마. 제2회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11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에서 4개국 14개 회원단체 대표 44명이 참가하여 “변경협력의 문제점과 방안”이란 주제로 제2회 변경협력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자바이칼 정부와 중국 내 몽골간의 국경으로 흐르는 강 수질문제 회담, 이르쿠츠크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주의 NEAR회원국간의 변경협력현황, 알타이지역의 국제조정위원회(우리 공동의 집-알타이)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변경지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를 건의하자는 제안, 러시아-몽골-중국의 국경검문소상호협약의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몽골-러시아 국경지역인 <알탄불락-카흐타>의 국제자유무역지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토론내용

- 러시아와 주변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 건의
- 공동의 프로젝트 제안: 러시아-몽골 국경검문소, 러시아-중국 국경검문소의 상호협약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 NEAR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국경위반 행위 단속 및 범죄와의 전쟁업무추진
- NEAR 회원단체 범위내에서 <알탄불락-카흐타> 국제자유무역지구로 만드는 방안 마련
- 중국, 몽골 등 인접국가 지역의 러시아 육류수입쿼터제 할당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에 건의
- 협력활성화와 무역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활동을 하는 참가자의 정보 교환의 공통기구 설립. 투자프로젝트 정보게재, 대외 무역활동정보 교환, 법률제안, 국제회의의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의 홈페이지 마련 (NEAR 홈페이지 활용도 가능)
- 자연보호협력을 위한 공동의 작업국경지역의 수질보호를 공동의 노력
- NEAR의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국제협화-시베리아협정” 활동들 이 “국제조정위원회-우리 공동의 집-알타이”의 경험 공유

3. 2013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2013년도에는 방재, 여성아동, 교육문화, 환경, 관광, 해양어업, 경제통상, 과학기술 분과위원회 등 10개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대한민국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농업분과위원회는 설치가 승인된 이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회원단체들의 분과위원회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하며, 분과위원회별 공동수행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coordinator)의 범위를 넘어 분과위원회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할 경우 관심 있는 회원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실무자 워크숍

Working-level Workshop



동북아시아를 결집하는 교류의 디딤돌

NEAR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이 2012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중국 3개 단체, 일본 10개 단체, 대한민국 9개 단체, 몽골 11개 단체 등 총 4개국 33개 단체 80여 명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결속을 강화하고 교류의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본 환동해(일본해)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연구원을 초청, 특강을 통해 일본 지자체 외교의 모범교류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지방 간 교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 및 NEAR의 역할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들을 외부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NEAR회원단체의 교류 사례 발표 및 현안에 대한 토론 등 이어진 회의 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회원단체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도 이동,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였다.



1. 특별강연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은 36년간 니가타 시청 및 국제정책·경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집중적인 경제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자매도시와의 정기항로 및 항공 개설, 시민 국제화, 재외공관 유치 등 니가타시의 국제교류전략과 성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동북아 자치단체들 간 교류의 심화발전을 위한 국제적 인재 육성과 국제물류 인프라 정비, 기업정보의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EAR가 회원들의 의견을 기본이념의 방향으로 결집시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의결과를 중앙 정부에 설명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외부에 개방된 회의 개최, 자문조직의 설치, 동북아의 중요문제를 분과위원회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지방 간 논의 심화, 민간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NEAR 사업활동의 대외홍보 강화 등 외부전문가의 시각으로 NEAR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제안을 하였다.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하여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 수범사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추진해 온 다양한 인적교류 및 인턴십 사업을, 전라남도도는 미국 자매도시와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영어교육 개선, 일본 효고현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몽골 옅스아이막은 축제개최를 통한 변경지역 민간교류 강화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일본 효고현의 모리야스 히데카즈 국제교류과 과장이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3.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동북아 지방간 구체적 교류사업으로서 추진 준비 중인 NEAR청년 해외인턴교류 프로그램을 'PioNEAR(Professional Internship Program of NEAR: NEAR)'을 소개 및 토의로 실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하는 대구광역시
윤소영 주무관



'PioNEAR' NEAR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에
대해 부연설명하는
김종학 NEAR사무처장

4.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탐방

대한민국 여수세계박람회장 참관을 위한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국관에서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역량을 느낄 수 있는 영상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통공연이 접목된 환상적인 무대를 관람했다. 또한 주제관에서는 듀공이라는 희귀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영상 등을 관람하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국제관에서 일행은 각자 관심 있는 국가의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것으로 여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경



“회원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라남도의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및 일본 대표단

· *New Millennium Silk Road* ·

연합 기반 강화

Strengthening

NEAR

基本

Purpose & Mission

◆ 互惠 —
Reciprocity

◆ 信賴 —
Trust & Res

◆ 交流 —
Exchange & C

東北亞 治團體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
org



1. 新비전 조사·연구 용역

그 동안 임기제로 운영되어 오던 사무국이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장기적 존치가 확정됨에 따라, 21세기 NEAR의 新비전을 제시하고 사무국의 조직 개편 및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단체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과 회원 단체의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전문학술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에서 연구 중에 있다.

연구용역 개요

- 기 간 : 2012년 6월 ~ 12월(6개월간)
- 수행기관 : 경북대학교(아시아연구소)
- 주요내용 : NEAR 新비전, 회원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

2. 웹 사이트 재구축

가. 기존 웹사이트

기존 웹사이트는 회원단체간 교류를 촉진과 접근성 향상 및 경제통상네트워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메인서버를 경상북도청 전산실에 두면서 2005년 구축되었다. 웹사이트는 회원단체 및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사 및 사무국 조직을 안내하고, 각 회원자치단체 소개와 관광, 투자정보 제공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창구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 재구축 웹사이트

연합(NEAR) 웹사이트를 독립 서버 기반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게 최신 정보기술 반영하여 정보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회원단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재구축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제 웹표준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로 구축하면서 기존 메뉴의 통·폐합과 보완으로 콘텐츠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웹사이트 디자인과 UI 보완하며, 기존 시스템 내에 저장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시스템에 관한 온라인 상담 및 FAQ /Q&A, 커뮤니티페이지, 설문시스템 등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및 콘텐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재편성, 사용자 위주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단체간 교류 촉진과 결속력 강화하고, 국내외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신흥지역 관계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9개 화면에 의한 동시 회원자치단체간 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독자적인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웹메일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의 적용으로 각종 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6개국 언어로 제공되며,(중문, 일문, 한글, 몽골, 러시아어로 입출력 가능하게 구현) 운영에 기술적인 제약과 문제점이 없도록 개발하였다. 국가별 정서에 부합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웹형식 보완하였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행사안내, 등록, 운영, 결과보고 등 행사 전반을 관리하며, 참석자 및 행사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행사결과 분석에 의한 성과평가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운영자가 편리하고 빠르게 동영상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환경(서버 및 파일 자동변환 업로드)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NEAR News 발간 확대

격월간지인 「NEAR News」는 NEAR 사무국의 소식지로서 NEAR활동, 사무국소식, 회원단체 동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NEAR와 사무국의 국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특별기고, NEAR 활동, 사무국소식, 회원자치단체 동정과 기획취재, 회원단체 탐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NEAR News」 제1판이 2005년 7월 발간되면서 매월 발간하다가 2006년 1월 이후 격월로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발간부수를 2,100부로 대폭 확대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4. 주요인사 방문

가. 경상북도 정부부지사 방문

2012년 3월 12일, 경상북도 이인선 정부부지사가 사무국을 방문하여 '11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NEAR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지방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 위원 11명이 2012년 11월 15일 사무국을 현지방문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경상북도의회 의장(송필각)이 방문하여 기획경제위원들과 NEAR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다. 경상북도 국제관계자문 대사 방문

2012년 9월 경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취임한 홍종경 대사가 12월 3일 인사차 사무국을 방문하여, 동북아시아 광역 지방정부간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경북도와 NEAR의 역할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홍 자문대사는 駐호치민 영사, 駐뉴욕 영사, 駐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Welcome to Shimane!

2012 행사일정

Event Schedule Member Regions in 2012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효고현(일)	제10회 NEAR 방제분과위원회	3. 12 ~ 3. 15	코베시, 미키시
허난성(중)	제7회 중국허난국제투자무역상담회	3. 22 ~ 3. 25	정저우시
대구광역시(한)	제9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3. 28 ~ 3. 30	대구 EXCO
경상남도(한)	2012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3. 30 ~ 6. 10	고성군
이르쿠츠크주(러)	국제 관광박람회 「바이칼뚜르」	3. 29 ~ 3. 31	이르쿠츠크
산둥성(중)	중국(쇼우광)국제채소과학기술박람회	4. 20 ~ 5. 20	쇼우광시
경상남도(한)	제12회 창원국제교육도시연합세계총회	4. 25 ~ 4. 29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전라남도(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5. 12 ~ 8. 12	여수신항일대
대구광역시(한)	대구육상경기대회	5. 16	대구 스타디움
부산광역시(한)	2012 부산국제모터쇼	5. 24 ~ 6. 3	부산시 BEXCO
이르쿠츠크주(러)	제2회 “바이칼의 환대” 포럼	5. 24 ~ 5. 26	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변경주(러)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	5. 25 ~ 5. 27	블라디보스톡
경상북도(한)	2012 NEAR 실무자워크숍	5. 29 ~ 5. 31	경주시, 여주시
자바이칼변경주(러)	국제오페라음악축제 “바이칼의 숨결”	5. 30 ~ 6. 3	이르쿠츠크
닝샤후이족자치구(중)	제4회중국(닝샤)국제문화예술관광박람회	6. 1 ~ 10. 31	인촨시
헤이룽장성(중)	제23회 중국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담회	6. 15 ~ 6. 19	하얼빈시
알타이변경주(러)	국제청소년포럼 “ATP. 시베리아”	6. 23 ~ 6. 30	알타이변경주
경상남도(한)	2012 제4차 동아시아 해양회의	7. 9 ~ 7. 13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우부르항가이아이막 (몽)	야크축제/양염소축제/말축제	7. 13 / 7. 18 / 8. 9	바트울지섬/주옹바양을 랑섬/울지트섬
닝샤후이족자치구(중)	제9차 NEAR 총회	7. 24 ~ 7. 27	안촨시
전라남도(한)	제12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7. 24 ~ 7. 29	여주시
바양울기아이막(몽)	제11회 “알타이 우리 공동의 집”	7. 27	울기시
경상북도(한)	포항국제불빛축제	7. 28 ~ 8. 5	포항북부해수욕장
토아마현(일)	2012 토아마 세계어린이무대예술제	7. 31 ~ 8. 5	토아마시
마가단주(러)	제2회 NEAR 광물개발조정분과위원회	8. 1 ~ 8. 3	마가단시
부산광역시(한)	제17회 바다축제	8. 1 ~ 8. 9	해운대 해수욕장
시마네현(일)	제3회 NEAR 교육문화분과위원회	8. 3 ~ 8. 8	미쯔에시

회원자치단체 (국가)	행 사 명	기 간	장 소
투브아이막(몽)	전통가무 페스티벌	8. 5	투브아이막
충청북도(한)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8. 9 ~ 8. 15	제천시
산둥성(중)	제22회 칭다오 국제맥주페스티벌	8. 11 ~ 8. 26	칭다오시
대구광역시(한)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8. 27 ~ 8. 31	대구 EXCO
제주특별자치도(한)	2012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9. 4 ~ 9. 6	제주시
이르쿠츠크주(러)	제8회 바이칼 경제포럼	9. 13 ~ 9. 15	이르쿠츠크시
전라북도(한)	전주세계소리축제	9. 13 ~ 9. 17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한옥마을
후베이성(중)	2012 한강정 후베이-한국경제무역문화교류행사 (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 9.20)	9. 19 ~ 9. 21	우한시 웨스턴호텔
산둥성(중)	2012중국(취푸)국제공자문화페스티벌	9. 27 ~ 9. 29	취푸
경상북도(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9. 28 ~ 10. 7	안동 탈춤공원
바양울기아이막(몽)	‘금독수리’ 국제페스티벌	10. 2 ~ 10. 3	바양울기아이막
부산광역시(한)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10. 4 ~ 10. 13	영화의 전당 등
충청북도(한)	제2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10. 5 ~ 10. 7	청주시 예술의전당
대구광역시(한)	제1회 NEAR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10. 9 ~ 10. 11	대구 EXCO
대구광역시(한)	2012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10. 10 ~ 10. 16	대구 중앙로 동성로
대구광역시(한)	2012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0. 12 ~ 11. 10	대구 오페라하우스
대전광역시(한)	2012 대전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	10. 12 ~ 10. 15	대전 컨벤션센터
부산광역시(한)	제8회 부산세계불꽃축제	10. 26 ~ 10. 27	광안리 해수욕장
경상남도(한)	제15차 국제적조회의	10. 29 ~ 11. 2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한)	2012 제주올레 걷기 축제	10. 31 ~ 11. 3	올레 10~13코스
이르쿠츠크주(러)	제2회 NEAR 변경분과위원회	11. 7 ~ 11. 9	이르쿠츠크시
부산광역시(한)	지스타 2012 국제게임전시회	11. 8 ~ 11. 11	부산시 BEXCO
부산광역시(한)	2012 부산국제 합창제	11. 14 ~ 11. 17	부산시 문화회관
사하공화국 (야쿠치아) (러)	제2회 국제 전문 박람회 “석유, 가스, 환경, 에너지-2012”	11. 14 ~ 11. 16	야쿠츠크시
부산광역시(한)	2012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	11. 15 ~ 11. 17	부산시 BEXCO

대외협력 네트워킹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R20(기후변화 지방정부행동기구)과 파트너십 구축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R-20총회에 참석하고 Rio+20회의를 위한 국제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 NEAR-R20은 상호 파트너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동과제 도출 및 상호교류협력 채널 구축(NEAR-AER-R20)에 합의하였다.



하바롭스크변경주 쉬포트 주지사 면담

2012년 5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본다렌코 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와 디아노프 하바롭스크변경주 국제관계국 국장과 NEAR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제9차 닝샤 총회에 쉬포트 주지사 초청 및 향후 NEAR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 참석

2012년 6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하얼빈 국제무역박람회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헤이룽장성 부지사와 회견을 통해 제9차 닝샤 총회 초청 등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다.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참석

2012년 9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WCC 및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하고, 교류협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10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 및 2012년 '한강정' 중국 후베이성-한국 경제·무역·문화교류행사 참석

2012년 9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한국경제무역협력간담회, 한·중 전문가 세미나,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NEAR-AER 동반자 협정서(MOU) 체결

2012년 10월 프랑스 스타라스부르에서 개최된 AER(유럽지방정부연합회) 총회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 양기구간 상호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청년인턴프로그램과 같은 공동과제에 대한 양 기구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 개최된 세계민주주의 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연사로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동북아시아 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러시아 회원주정부 방한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

2012년 10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연방대사, 니콜라이 두도프 마가단주 주지사 등 사절단 25명과 대한민국 기업인 60명이 참석한 투자유치 세미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한·중·일 3국 협력 TCS 국제포럼 참석

2012년 10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협력 TCS 국제포럼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변환기의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합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제10회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

2012년 11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경북도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제10회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에 NEAR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의 역할과 지역간 연계 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중·일 공무원 협력 워크숍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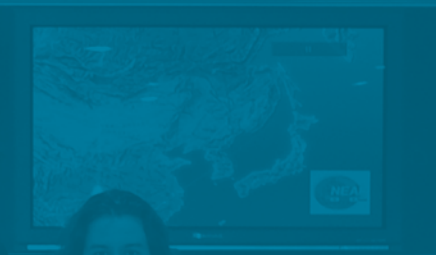
2012년 12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한·중·일 공무원 협력 워크숍에 NEAR 사무국 국제협력과장과 4명이 참석하여 한·중·일 3국 협력 및 지방정부 차원의 발전방안과 3국 공무원간 인적 교류증진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사무국

The Secretariat

· *New Millennium Silk Road* ·



· *團結合作* ·
· *Reciprocity & Cooperation* ·

NEAR

基本精神

Purpose & Principle

◆ 互惠 - 平等

Reciprocity & Equality

◆ 信賴 - 合作

Trust & Cooperation

· *Flow* ·

1. 운 영

연합의 사무국은 1996년 창설 이래 2년 임기의 의장단체가 사무국 운영을 병행하는 순회사무국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연합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순회 사무국운영 방식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회원단체의 공감에 따라,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4년 임기제 상설사무국 운영이 합의되었으며, 연임 제한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상설사무국의 유치를 제안, 합의 되었으며, 운영 예산은 경상북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2012년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는 임기제 상설사무국에서 진일보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사무국운영에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재 무

사무국에는 16명의 상근 및 파견인원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US \$100만(한화 11억원/600만 위엔/8,500만엔 상당) 내외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다.

3. 회비제

연합의 헌장에 의거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회비제 도입을 유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창설 이래 연합의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최 회원단체가 부담하며 참가 회원 단체는 최소한의 참가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장 비중이 큰 사무국 운영비는 상설사무국 운영제도가 합의되면서 사무국 유치 회원단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회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7차·제8차·제9차 총회에 걸쳐 회비제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기로 하였다.

4. 사무국 직원

			
사무총장 김 재 효		사무처장 김 종 학	
			
기획총무과장 배 경 점		국제협력과장 구 해 일	
			
오 명 호 (경상북도파견직원)		안 자 준 (경상북도파견직원)	
			
이 혜 정 (중국전문위원)		장 보 양 (중국파견직원)	
			
최 수 규 (일본전문위원)		이케가미 다카히사 (일본 파견직원)	
			
르함 히식자르갈 (몽골전문위원)		다와삼보 레르텐빌레그 (몽골 파견직원)	
			
최 경 남 (러시아전문위원)		이반 포노마렌코 (러시아 파견직원)	
			
김 경 실 (영어전문위원)		이 희 숙 (사무보조/비서)	

부록

Appendix



NEAR Members

China (6)	• Heilongjiang Province •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 Henan Province • Hubei Province	• Shandong province • Hunan Province
Japan (10)	• Niigata Prefecture • Shimane Prefecture • Aomori Prefecture • Yamagata Prefecture	• Toyama Prefecture • Hyogo Prefecture • Ishikawa Prefecture	• Tottori Prefecture • Kyoto Prefecture • Fukui Prefecture
South Korea (16)	• Gyeongsangbuk-do Province • Gyeonggi-do Province • Jeollabuk-do Province • Busan Metropolitan City • Daejeon Metropolitan City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Gyeongsangnam-do Province • Chungcheongbuk-do Province • Jeollanam-do Province • Daegu Metropolitan City • Gwangju Metropolitan City	• Gangwon-do Province • Chungcheongnam-do Provinc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cheon Metropolitan City • Ulsan Metropolitan City
North Korea(2)	• Hamgyeongbuk-do Province • Rasun city		
Mongolia (22)	• Tuv Province • Dornod Province • Dornogovi Province • Bolgan Province • Arkhangai Province • Govi-Altai Province • Bayan-Ulgii Province • Darkhan-Uul Province	• Selenge Province • Sukhbaatar Province • Dund-govi Province • Uvurkhangai Province • Khuvsgul Province • Khovd Province • Orkhon Province	• Ulaanbaatar City • Khentii Province • Umnugovi Province • Bayankhongor Province • Zavkhan Province • Uvs Province • Govi-Sumber Province
Russian (15)	• Khabarovsk Territory • Kamchatka Region • Republic of Buryatia • Tomsk Region • Altai Territory	• Sakhalin Region • Irkutsk Region • Chita Region • Krasnoyarsk Territory • Magadan Region	• Amur Region • Republic of Sakha(Yakutia) • Primorski Territory • Republic of Tyva • Kemerovo Region

NEAR Observers

China(4)	• Shanxi Province • Tianjin City	• Shaanxi Province	• Liaoning Province
Japan(1)	• Yamaguchi Prefecture		

Partners _ AER(Assembly of European Regions) Members

Albania (12)	• Berat • Fier • Lezhë	• Dibër • Gjirokastër • Shkodër	• Durrës • Korçë • Tiranë	• Elbasan • Kukës • Vlore
Armenia (24)	• Lori • Dubrovnik-Neretva • Koprivnica-Krizevci • Osijek-Baranya • Sibenik-Knin • Varazdin	• Tavuš • Grad-Zagreb • Krapina-Zagorje • Pozega-Slavonija • Sisak • Vukovar-Srijem	• Hrvatska (HR) • Istra • Licko-senjska • Primorje-Gorski • Moslavina • Zadar	• Brodsko-posavska • Karlovac • Medimurje • kotar • Split • Zagreb County
Austria (6)	• Burgenland • Salzburg	• Kärnten • Steiermark	• Niederösterreich	• Oberösterreich
Moldova (2)	• Cahul	• Soroca		
Nether- lands(4)	• Flevoland	• Gelderland	• Limburg	• Noord-Brabant
Norway (9)	• Akershus • Nordland • Vestfold	• Buskerud • Oppland	• Hedmark • Østfold	• Hordaland • Telemark
Poland (3)	• Woj.Dolnoslaskie	• Woj.Slaskie	• Woj.Wielkopolskie	
Portugal 2	• Açores	• Madeira		
Republic of Macedonia (2)	• Eastern Region (Bregalnica)		• Pelagonia	
Romania (17)	• Alba • Bihor • Braşov • Covasna • Wien	• Arad • Bistriţa-Năsăud • Călăraşi • Dâmboviţa	• Argeş • Botoşani • Caraş-Severin • Tirol	• Bacău • Brăila • Cluj • Vorarlberg
Azerbaijan (2)	• Baku-Surakhani	• Shirvan		
Belgium (3)	• Bruxelles-Capitale	• 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 Wallonie
Bosnia/ Herzegovina (12)	• Bosna • Herce-Bosna • Sarajevo	• Podrinje • Hercegovina-Neretva • Tuzla	• Brcko • Posavina • Zapadnam Hercegovina	• Distrikt • Republika Srpska • Zenica-Doboj

Bulgaria (1)	• Ruse			
Cyprus (1)	• Union of Cyprus Municipalities			
Czech Republic (2)	• Královéhradeck'y	• Olomouc		
Denmark (2)	• Nordjylland	• Syddanmark		
Finland (8)	• Etelä-Pohjanmaa • Pirkanmaa	• Keski-Pohjanmaa • Pohjois-Karjala	• Keski-Suomi • Pohjois-Pohjanmaa	• Lappi • Satakunta
France (30)	• Alsace • Champagne-Ardenne • Gorj • Iași • Mureș • Sălaj • Teleorman • Vaslui	• Aquitaine • Corse • Harghita • Ilfov • Neamț • Satu • Timiș • Vrancea	• Auvergne • Dolj • Hunedoara • Maramureș • Olt • Mare • Tulcea	• Centre • Galați • Ialomița • Mehedinți • Prahova • Sibiu • Vâlcea
Russia (5)	• Ingushetia • Tatarstan	• Karelja	• Mordovija	• Samara
Serbia (1)	• Vojvodina			
Slovakia (2)	• Kosice	• Trnava		
Spain (3)	• Catalunya	• Comunitat Valenciana	• Región de Murcia	
Switzerland (20)	• Aargau • Fribourg • Franche-Comté • Languedoc-Roussillon • Picardie	• Basel-Landschaft • Genève • Guadeloupe • Limousin • Poitou-Charentes	• Basel-Stadt • Graubünden • Guyane • Martinique • Réunion (La)	• Bern • Jura • Ile-de-France • Midi-Pyrénées • Rhône-Alpes
Germany (2)	• Baden-Württemberg	• Hessen		
Georgia (7)	• Adjara • Kvemo Kartli	• Guria • Shida Kartli	• Imereti • Tbilisi	• Kakheti
Greece (3)	• Kentriki Makedonia	• Kriti	• Sterea Ellada	

Ireland (1)	• Donegal			
Italy (13)	• Abruzzo • Friuli Venezia Giulia • Toscana • Valle	• Basilicata • Lazio • Trentino-Alto Adige • d'Aosta	• Bolzano (Provincia) • Molise • Trento (Provincia)	• Campania • Sardegna • Umbria
Hungary (16)	• Bács-Kiskun • Neuchâtel • St. Gallen • Valais	• Baranya • Nidwalden • Thurgau • Vaud	• Békés • Obwalden • Ticino • Zürich	• Luzern • Schwyz • Uri • Zug
Sweden (14)	• Dalarna • Kronoberg • Sörmland • Västernorrland	• Gävleborg • Norrbotten • Uppsala • Västra Götaland	• Jämtland • Örebro • Värmland	• Jönköping • Östsm/Östergötland • Västerbotten
Turkey (9)	• Bursa • Kahramanmaraş • Usak	• Denizli • Kırşehir	• Edirne • Kocaeli	• İstanbul • Samsun
Ukraine (8)	• Dnepropetrovsk • Kyjiv	• Donetsk • L'Viv	• Kherson • Odessa	• Kirovograd • Vinnytsia
United Kingdom (13)	• Hampshire • Győr-Moson-Sopron • Komárom-Esztergom • Tolna	• Borsod-Abaúj-Zemplén • Hajdú-Bihar • Pest	• Csongrád • Heves • Somogy	• Fejér • Jász-Nagykún-Szolnok • Szabolcs-Szatmár-Bere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Members

Africa (8)	• Northern Region, Burkina Faso • Region Oriental, Morocco • Delta State, Nigeria • Dakar, Senegal	• Region des Haut Bassin, Burkina Faso • Region of Taza-Al Hoceima-Taounate, Morocco • Western Province, Rwanda • Matam, Senegal
Asia-Pacific (3)	• Gujarat State, India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South Korea	• Cebu, Phillipines
Europe (6)	• Istria, Croatia • Puglia, Italy • Alba County, Romania	• Ile de France, France • Azores, Portugal • Donetsk, Ukraine
North America (9)	•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 State of Campeche, Mexico • State of Sinaloa, Mexico • State of California, USA • State of Michigan, USA	• State of Baja California, Mexico • State of Chiapas, Mexico • State of Quintana Roo, Mexico • State of Connecticut, USA
South America (2)	• State of Acre, Brazil • Pichincha, Ecuador	

Partners _ R-20(Regions of Climate Action) Partner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4)	• Assembly of European Regions(AER) •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NEAR)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World Association of Regions, Metropolis
--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11~20 F. +82-54-223-2309 E-mail neargov@hotmail.co.kr Website www.neargov.org